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9. 15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농산물원종장장	강태완	☎	760-7200
	업무담당자	양성년	☎	760-7212
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	760-7514

제주 딸기 고품질 생산, 생육단계별 관리가 좌우한다

- 건전묘 선별부터 착과량·온도·양액까지 단계별 관리 당부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본격적인 딸기 재배시기를 맞아 고품질 딸기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정식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.
- 딸기는 주로 시설재배를 중심으로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되는 대표적인 겨울철·봄철 과채류다. 제주에서는 ‘설향’ 품종의 재배 비중이 높으며, 기형과 발생이 비교적 적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.
- 고품질 딸기 생산의 출발점은 건전한 묘 선택과 적기 아주심기(정식)다.
 - 꽃눈분화가 완료된 묘를 활용해 포트묘는 9월 10~15일, 노지묘는 9월 20일 전후 정식하는 것이 적절하다. 묘는 생육기간 60~90일, 잎 수 3매 이상, 관부 지름 8mm 이상으로 뿌리 발달이 양호하고 병해충 피해가 없는 것을 선별한다.
 - * 관부: 뿌리와 잎, 줄기가 연결되는 식물체의 밑동 부분
 - 탄저병, 흰가루병, 응애류 등 주요 병해충 예방을 위해 정식 1~2주 전 적용약제를 반드시 살포하고, 역병과 시들음병 등 토양전염성 병해 예방을 위해 토양과 재배시설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.
- 정식 이후에는 적정 착과량을 유지해 식물체의 세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.

- 딸기는 수확기간이 길고 개화와 착과가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화방에 과실이 과도하게 달리면 과실이 작아지고 식물체 세력이 약해질 수 있다.

* 화방: 딸기에서 꽃이 모여 달리는 꽃대 또는 꽃무리

- 이에 따라 먼저 핀 꽃을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‘적화’와 착과된 과실 일부를 숙아내는 ‘적과’가 필요하다. ‘선향’ 품종의 고설식 수경재배에서는 생육상태를 고려해 첫 화방은 7~9화(花), 두 번째 화방은 5~8화(花)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* 고설식 수경재배: 작물을 땅에 심지 않고, 허리 높이 안팎의 재배대에서 양액을 공급해 키우는 재배방식

□ 수확기까지 생육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 온도와 양액농도 관리도 중요하다.

- 야간 온도는 9℃ 이상, 주간 온도는 23~25℃로 유지하며, 시설 내부 온도가 28℃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히 환기해야 한다.
- 야간 온도가 0℃ 이하로 떨어지거나 5℃ 이하의 저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수정 불량과 기형과 발생 위험이 커지며, 주간 온도가 15℃ 이하로 낮아지면 수정벌 활동이 저하될 수 있다.

* 수정(受精): 꽃가루받이(수분) 이후 과실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생식 과정

- 수경재배에서는 양액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식물체의 생육이 저하되고 과실의 당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, 생육상태와 재배환경을 고려해 양액 EC를 1.2~1.3dS/m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* EC(전기전도도): 양액에 녹아 있는 비료 성분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, 수치가 높을수록 양액 내 이온 농도가 높음을 의미함

□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고품질 딸기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생육단계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”며 “앞으로도 현장 적용이 가능한 재배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제주 딸기의 품질 향상과 안정생산을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